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이끌어낸 전현영 동문이 국가대표팀 단복을 입고 우리학교를 찾아왔다.

(사진=김나희 기자)

한 아무 정보도 없이 활을 쏘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자신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독님과 코치님이 꾸준한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담감을 내려놓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활을 잡았다.

8강, 4강에서 승리를 거둔 여자 대표팀은 10연패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이 걸린 결승전에 다다랐다. 숙적 중국과 다시 만났다. “예전에는 ‘중국에 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올림픽 결승에선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이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대 신경은 전혀 안 쓰였죠.”

전 동문은 결승전에서 무아지경으로 활을 쏘았고 회상했다. 상대가, 그리고 자신이 몇 점을 쏘고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몰입했다. 금메달이 확정됐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전 동문은 그동안의 긴장감과 압박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을 기쁘게 맞이했다.

멀지만 가까운 목표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출발

전 동문은 올림픽 금메달로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았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간 것부터 모든 운을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동안의 인생이 바로 파리를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아요.”라며 금빛 웃음을 지었다.

전 동문은 가까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학창 시절에는 양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고 대학에서는 양궁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업팀에서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매 순간 새로운 목표를 세워 도전했고 그 목표가 바로 지금의 자신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동문의 양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늦은 나이의 첫 올림픽이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징크스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경기에서 진 날에 흰 양말을 신었으면, 그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흰 양말을 신었죠. 이길 때까지요.” 전 동문은 스스로 별다른 징크스나 루틴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징크스에 얽매는 시간에 오히려 훈련에 집중하고, 기량을 더욱 갈고닦았다. 노력과 실력을 믿으며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전 동문.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전 동문의 양궁 인생을 응원한다.

단체전 10연패, 금메달로 엑스텐 완성 “그동안의 인생은 파리를 위해 존재”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전현영(스포츠지도학 2013) 동문

2024 파리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스포츠 역사에 남을 올림픽 호성적을 기록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양궁 대표팀은 그중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타공인 세계 최고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특히 여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대미문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다. 그곳에 서 있던 전현영(스포츠지도학 2013·인천시청) 동문. 부담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만연니로서 만점 활약을 보여준 그녀의 금빛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바늘구멍은 통과했지만 부담감은 배로

전 동문은 22년 동안 활을 쏘았다. 그리고 2020년은 전 동문 인생에 잊지 못할 해였다. 험난하기로 유명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고 2020 도쿄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그녀의 꿈도 잠시 멈춰버렸다. “올림픽이 인생의 전부 아니잖아요. 국내 대회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올림픽이 연기됐어도 그냥 제 것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전 동문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

4년 뒤, 전 동문은 파리행 티켓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약 6개월의 치열한 선발전을 치러야 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흔히 ‘바늘구멍’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 1위와 최하위의 점수 차가 단 1점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하다. “반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해, 단순

히 운으로는 절대 선발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있으니까요.”

힘겹게 바늘구멍을 통과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올림픽에서의 양궁 금메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끼니 ‘정말 힘든 건가?’라며 흔들리기도 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는 전 동문에게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부담이기도 했다.

축구장에서의 소음 속에서도 쫓 곳이 훈련을 이어갔고, 올림픽을 그대로 재현한 경기에 참여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훈련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면 빨리 잊으려 했어요. 한 목표가 잘 안되더라도 또 다음 목표를 금세 잡았죠.”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도전이라는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만 집중

했다. 그 결과, 3차 월드컵에서 마침내 중국에 승리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다. 중국은 1, 2차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좌절을 안겼던 기억이 있다.

10연패의 부담 믿음에 부응하며 쏘던 활

전 동문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단체전 10연패 관련 질문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컸어요. 특히 올림픽이 처음인 제가 주장까지 맡으며 팀을 이끌어야 했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만 해야 했던 전 동문은 마치 본인의 모습이 로봇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첫 올림픽, 첫 올림픽에서의 주장 말고도 다른 도전이 눈앞에 나타났다. 단체전에서 1번 주자를 맡게 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1번 주자를 맡게 됐어요. 1번 주자는 바람에 대